광주 세밀한 인권지표 만든다

■ 광주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

성범죄·자살률·외국인 인권 등 반영

광주시가 13일 인권도시를 향한 마스터플랜인 '광주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참여, 나눔, 연대의 인권공동체)'을 내놓았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작성한 이 계획은 그동안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던 '인권도시'를 각종 지표로 구체화하고 인권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인권도시 광주' 비전과 목표='광주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은 광주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삶이 안정돼야하며,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시민 삶의 질과 역량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와 광주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인권도시의 국제화'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인권도시 5대 기본전략으로는 ▲국제교류 협력 ▲인권지표(실천계획) ▲인권교육학습 ▲인권도시 브랜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선정했다.

◇인권지표와 인권지수 마련=인권지표는 민주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의 자유권,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경제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뜻하는 환경권,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도시를 수치화한 연대권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상세한 인권지표에서는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으로 나눠 분야별로 역점지표를 마련했다.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성폭력, 성매매, 여성·노인·장애인·아동학대 및 폭력, 외국인 노동자 학대 및 폭력, 학교 폭력 등이 지표에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결식아동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수혜율,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율, 소외계층 문화예술 수혜율, 자살률,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도 주요 지표로 거론됐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률, 편의시설 설치율 등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비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증감률 등이 지표화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기본적인 통계가 없는데다 이들 지표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해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해야한다고 광주발전연구원측은 밝혔다.

◇인권교육 및 교류협력 강화=광주발전연구원은 우선 조례를 통해 인권교육 근거를 규정하고 광주인권교육협의회와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 각급 학교, 공직사회 등 영역별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민연대 모임, 광주국제교류센터, 5·18기념재단 등이 선도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광주를 인권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해서 5·18 명소, 인권명인, 5·18 기록물, 인권예술콘텐츠, 인권교류페스티벌 등 5대 대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박사는 "인권시민위원회, 광주시와 시의회, 인권센터, 실천시민조직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이 협의기구를 만들고 시민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실천해야한다"며 "앞으로 인권헌장 제정, UN 및 국가인권위회의 자문 등을 통해 계획을 다듬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손학규·박근혜 어색한 조우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상임위에 참석한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의 불구경(?) 수준인데, 뭘…

■ 감사원, 대학등록금 감사 박차

예비조사 본감사처럼 2학기 반영되게 빨리

감사원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감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주 중으로 감사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내달 초 사실상 본감사에 준하는 예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TF에서 각 대학의 재정운영상태 등에 대해 서면 분석을 하는 등 기초적인 감사 틀을 정한 뒤 곧바로 재정운용 부실대학 등에 대한 실지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건 원장도 최근 정창영 사무총장에게 "2학기 등록금 결정 과정에 감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최종 감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감사 내용을 일부 공개해 2학기 등록금 인하에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예비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본감사처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7월에 예비조사 윤곽이 나올테니 자연스럽게 대학의 등록금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기간의 감사로 얼마나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사립대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에 대한 지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를 목전에 둔 대학들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된 기본 정책자료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감사원이 저축은행 실태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성과 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당장 감사원 내부에서도 등록금 감사 기간이 내달 말로 예정된 인사 및 휴가 기간과 겹쳐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정치적 승부 걸고 '내민 孫'

손학규 민주 대표 '민생' 영수회담 제의

정국 주도권 확보·리더십 역풍 '분수령'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영수회담 카드를 전격 꺼내든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직접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온 '민생'을 고리로 영수회담을 성사, 정국을 타개하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4·27 재보선 승리 이후, 급상승했다가 주춤해진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이후, 손 대표는 반값 등록금 논란은 물론 고물가, 고실업, 전세난 등 민생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타개책으로 영수회담을 검토해 왔다"며 "이를 위해, 손 대표는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과 영수회담 제안 시기와 내용 등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천둥소리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수회담이 이뤄진다면 의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포함, 물가, 일자리, 저축은행 사태, 가계 부채, 전·월세 등 민생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남북관계 등 다른 정국 현안들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수회담 제의는 성사 여부를 떠나 손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을 두고 고심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도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 대표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복잡하게 얽힌 여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경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오히려 여야 간의 갈등은 물론 당내에서도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 부담도 없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대표가 민생 문제를 고리로 나름대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며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리더십 부재 등이 거론되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